PE하수관 전문기업

완벽한 수밀보장
PE이중벽관, PE다중벽관, PE오수받이, PE소형맨홀
㈜화도케미칼 053-617-4480

대구광역일보

BENSONI de Beauty Salon Style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69길 65 수성롯데캐슬 더 퍼스트상가 2F
예약문의 TEL.053.746.5332 FAX.053.746.6332

1996년 7월 11일 창간 제 4014호 대표전화 (053) 253-0000 광고·구독안내 (053) 257-0000 www.dgy.co.kr 오늘의 날씨 대구 -3~7℃ 경북 -5~6℃ 단기 4350년(음력 11월 4일)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사랑의 스틸박스' 포스코패밀리 봉사단은 20일, 지역 아동을 위한 '사랑의 스틸박스' 선물세트 1100개를 제작했다. 〈관련기사 5면〉

비슬산 유스호스텔 변칙 영업… 최고 뒷배는 누구?

달성 관변·사회단체 송년회 모임 장소 둔갑
유스호스텔 영업활동 공무원 몫 돈벌이 혈안

달성군 비슬산 유스호스텔의 변칙 영업이 또 한번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유스호스텔은 최근 사전 선거법위반 논란의 중심이 된 곳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을 위한 애초 건립목적에서 벗어나 달성군 관변·사회단체의 송년회 장소로 사용, 눈총을 받고 있다.

때문에 군민들은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의 꼼수영업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실제 관광진흥법에 유스호스텔은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 시설로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유스호스텔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호텔과는 달리 공적 성격이 강하다. 달성군이 건립한 유스호스텔은 세금으로 지은 건물이다.

하지만 유스호스텔은 달성군 각종 관변단체 및 사회단체의 송년회 모임장소로 둔갑했다.

유스호스텔 12월 중 행사 일정표에는 달성군의 60여개 단체에서 예약했지만 청소년을 위한 단체는 단 1곳도 없다.

송년 행사가 유스호스텔로 몰리자 가뜩이나 불경기인 요즘 달성군 식당가는 울상이다.

연말·연시를 기대한 식당주인들은 "관이 민간의 영역까지 침범해 청소년을 위한다는 꼼수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돈벌이에만 급급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관변·사회단체의 경우 보조금으로 대관료를 지불하고 비싼 음식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다.

모 단체장은 "연말모임으로 공무원과 상의하면 공무원이 유스호스텔로 잡아 어쩔 수 없이 이용한다"고 실토했다.

유스호스텔 영업은 각 읍·면이나 공무원이 하고 있는 셈이다.

달성군은 4성급 호텔로 국내·외 청소년 및 일반인들에게 비슬산의 자연과 천연 암반수가 만난 천혜의 힐링공간을 제공한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유스호스텔로 들어서자 노래방에 온 기분이다. 방음시설 미비로 방음공사를 다시 한 것으로 알려진 유스호스텔은 달성군이 자랑하는 4성급 호텔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청소년은 보이지 않고 유행가 스피커 소음과 행사에서 간간이 보이는 손님들은 취기가 있어 청소년이 접근하기가 민망스럽다.

강순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유스호스텔은 일반인도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해 유스호스텔의 건립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조여은 기자

박인규 대구은행장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

검찰,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
박인규 회장 구속영장 기각

박인규〈사진〉 DGB금융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

검찰이 30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대문이다.

대구검찰청은 20일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기각했다"면서 "소명이 부족한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지휘했고 보완 수사를 통해 추후 경찰에서 영장을 재신청할 경우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를 다시 결정한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앞서 지난 19일 박 회장에 대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사문서행사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대구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경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법인카드로 사용해 대량으로 사들인 상품권을 상품권판매소에서 수수료(5%)를 공제한 뒤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짓 견적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회장은 경찰에 제출한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소명서를 통해 "상품권을 현금으로 만들어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회장의 소명은 금액이 부풀려진 데다 신뢰할 수준이 못 됐다"며 "검찰 기각한 사유를 다시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추진

2018년 4000명 선발
4000개의 일자리 중
1200여개 청년의 몫

대구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에 참가할 시민 4000명을 모집한다.

일자리 디딤돌사업은 기존 공공근로사업을 개편해 취약계층에게 단기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청년에게는 취업 전에 일 경험을 쌓게 하려는 취지다.

참가자는 환경 정화, 공공서비스 분야에 투입되고 청년들은 DB구축, 실태조사, 사회복지, 청소년 지도 등의 일을 맡는다.

4000개의 일자리 중 1200여개가 18-39세 청년들의 몫이다.

공공일자리를 발판으로 민간기업 취업을 계획하는 청년에게는 대구시가 취업상담과 취업박람회 참가 등의 기회를 줄 계획이다.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은 1단계로 내년 2월 5일~4월 27일, 2단계 5월 8일~7월 27일, 3단계는 9월 3일~11월 30일 순으로 진행된다.

1단계 참가 신청은 내년 1월 2~9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재산상황, 가구소득, 부양가족 등을 기준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임금은 하루 6시간 근무할 경우 4만5180원, 식비는 하루 3000원이 지급되며 주·연차 수당과 4대 보험료도 지원된다.

최운백 대구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청년들의 취업 전 직장경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방사능 측정기술·분석능력 확보

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방사성폐기물에 포함된 모든 핵종에 대한 방사능 측정기술과 분석기술을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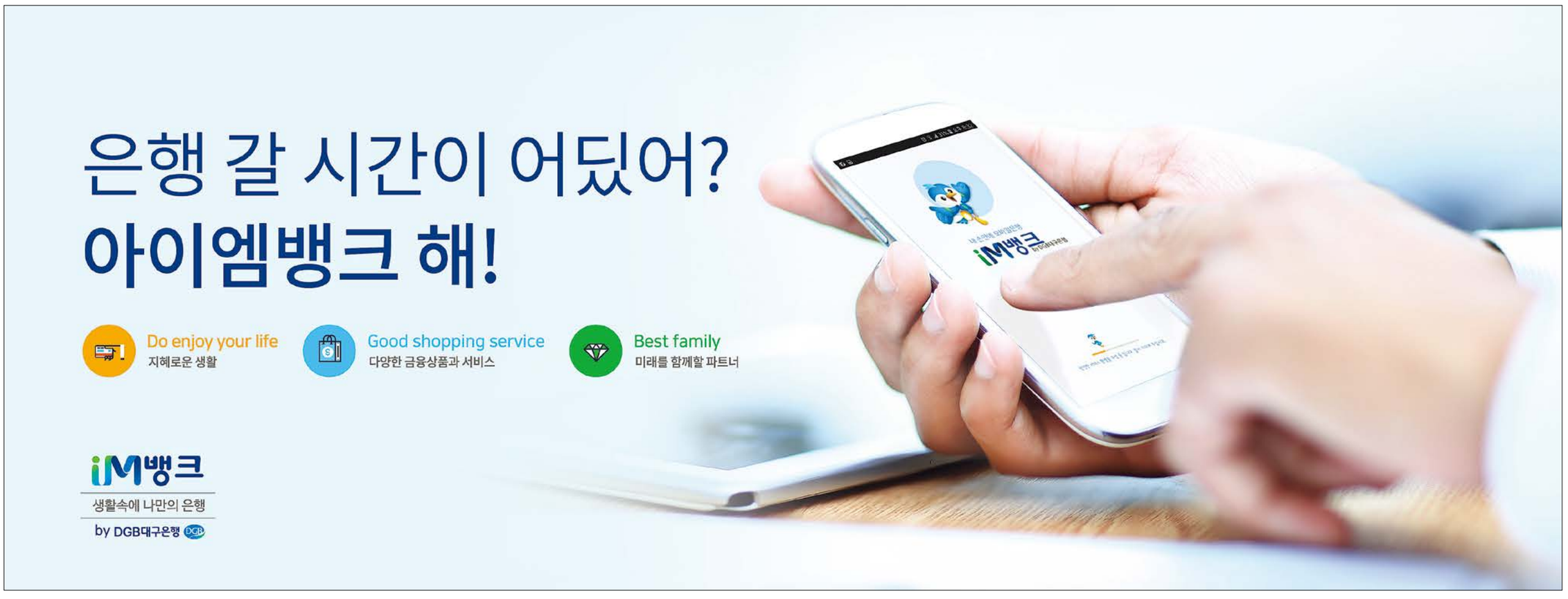
공단은 지난 7월부터 프랑스 헨리베크렐연구소(LNHB)가 주관하는 베타핵종에 대한 국제 방사능 교차분석에 참여해 공단의 방사능 분석값이 정확도와 정밀도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교차분석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포함된 베타핵종에 대한 각국의 방사능 분석기술 향상을 위해 원자력환경공단과 러시아 모스크바 주립대학 등 3개 기관이 참여했다.

프랑스 방사능 측정분야 국가 표준기관인 헨리베크렐연구소가 시료제작과 각 기관의 분석 결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했다.

그 결과 공단은 지난 2009년 감마, 2014년 알파, 이번에 베타핵종 등 방폐물에 포함된 모든 핵종에 대한 국제수준의 방사능 측정과 분석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윤용찬 기자



일·가정양립 실천포럼

오늘 민·관이 한 자리에

대구시는 21일 오전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지역 일·가정양립 지원 유관기관 및 참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 성과를 공유하는 '2017년 대구 일·가정양립 실천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민·관이 하나 되어 가족친화 기업문화와 일·가정양립 실천을 다짐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12월에 개최 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진영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정일선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해 유관기관과 일·가정양립 실천기업, 일·가정양립추진협의회, 가족친화마을(5개소), 대학생 기자단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은 가족친화인증서 전수, 시상,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 대구시 일·가정양립 추진전략 안내,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되는데, '가족친화인증서'는 평소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에게 전수된다. 인증서가 전수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심사를 통해 매년 12월 발표한다.

아울러 가족친화제도 및 일·가정양립문화 확산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되는데 이는 대구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 밖에도 가족친화 직장사례 공모와 일·가정양립 활동에 대한 콘테스트를 통한 시상과 우수사례 발표 등 올 한 해 기업·분야별 활동 성과에 대한 격려와 향후 발전방향을 공유하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방도시로서 전국 최초로 '대구일가정양립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가족친화적 일터확산에 주력 해왔다. 그 결과로 2014년 19개이던 가족친화인증기업 수가 올해 82개로 4배 가량 늘었으며 내년에는 세 자리 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포럼이 '가족친화인증' 기업과 시민이 하나 되어 지역 일·가정양립과 가족친화 확산을 다짐하는 공유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가족친화제도는 사업주의 노력과 부담을 필요로 하지만 저출산 극복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밑거름이 되는 유익한 제도이며, 오늘 행사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지역민의 지속적인 일·가정양립 실천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한 해 마무리는 종무식 대신 '따뜻한 봉사활동'

대구시, 소외계층 청소·급식 봉사 위문금품 전달

대구시는 연말연시 행사를 간소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오는 29일 종무식을 생략하는 대신 나눔 성금, 부서별 송년 경비 등을 활용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희망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봉사활동은 희망 직원 590여명이 참여해 동절기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해 청소, 급식 등 노력봉사와 위문금품(쌀, 라면, 성금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현재 114개 공무원 봉사단 활동을 분기별(년 4회)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봉사활동은 공무원 봉사단 운영과 별도로 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딱딱한 종무식 대신 연말 자칫 돌아보는데 소홀하기 쉬운 소외계층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했다.

대구시 전재경 자치행정국장은 "시민 모두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며, 배려하는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대구 공동체 만들기에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진희 기자

국내 최초, '대구 축제 캘린더' 발행

대구시-대구관광뷰로 내·외국인 함께 즐기는 대구 축제 64개 망라

대구시와 대구관광뷰로는 2018년 대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행사일정을 담은 '2018 대구 축제·행사 캘린더'를 제작, 배포한다.

이번 캘린더는 시민·관광객 130만명이 참가한 '컬러풀대구페스티벌', '문화관광 유망축제'인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실시간 검색어 1위의 '치맥페스티벌', 유네스코 음악도시의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과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등 대구를 대표하는 64개의 축제·행사가 망라됐다.

관광뷰로에서는 축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국문, 영문, 일문, 중문간체, 중문번체 등 5개 언어로 만들어 국내·외 여행사를 비롯해 관광안내소 및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 대구관광상품을 만들고 알리는 모든 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관광객 유치 우수 관광상품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각 축제를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관광박람회, B2B트래블마트, 해외 관광설명회, 국내·외 여행업계 세일즈콜 등을 통해 홍보·마케팅하고 축제 개최기관 및 국내·외 여행사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대구를 찾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축제문화연구소 김정환 대표는 "일본에서 전국 각 지역의 축제를 정리해 만들어진 캘린더는 보았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인 것 같다"며, "대구 축제, 행사 캘린더 제작이 대구를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축하인사를 전했다.

김진희 기자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 세미나 개최

10개 의료기관 의료관광 비즈니스 맞춤형 컨설팅 인증패 수여

대구 수성구는 14일 오후 6시 그랜드호텔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대권 수성구 부구청장, 김선순 수성대총장, 김숙자 수성구의회 의장, 수성구 보건의료단체장 및 수성구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원장과 실무진, 유관기관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의료기관들의 해외 환자 유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된 '의료관광 비즈니스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가해 컨설팅을 완료한 10개 의료기관에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번 인증패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대학교, ㈜인사랑컨설팅이 공동 추진한 '의료관광 비즈니스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10개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진료 시스템을 인증범위에 적합하게 구축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이번 컨설팅을 진행한 ㈜인사랑컨설팅 서은경 대표와 심소영 공동연구원의 컨설팅 추진 결과 보고를 통해 외국인 환자 대상 맞춤형 진료상품 개발, 서식 및 병원 프로세스 구축 등 의료관광 비즈니스 맞춤형 컨설팅의 추진 과정 및 성과를 공개했다.

또한 ㈜아스클레인터메드 이황 대표를 초빙해 '해외 환자 유치 노하우'에 대한 특강을 실시해 의료기관 및 유치기관 관계자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최신 동향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류재현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

대구시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선다.

정부에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원칙)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집을 통한 신청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방문, 우편, 팩스)도 가능하다. 김진희 기자

온기를 나누는 달성드림스타트 가족캠프

가창 스파밸리서 가족 추억 만들다

달성군 드림스타트팀은 지난 1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가창 스파밸리에서 드림스타트 가족 25세대 80여명을 대상으로 연말을 맞아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가족 캠프를 실시했다.

달성군 드림스타트팀이 매년 연말마다 진행하는 캠프 프로그램으로, 첫날에는 불빛 축제와 동물원 관람을 즐겼으며, 특히 샌드아트 공연과 체험이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둘째 날에는 워터파크에서 온천 체험 등을 하며, 소중한 가족의 추억을 만들기도 했다.

캠프에 참여한 한 아동은 "신기한 동물들도 구경하고 물놀이도 할 수 있어서 무척 신난다"고 소감을 전했고, 손자와 처음으로 온천 체험을 했다는 할머니는 "드림스타트 덕분에 모처럼 온천에 와서 고마웠고, 손자가 너무 즐거워해서 기쁘다"고 말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가족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추억을 만드는 알찬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가족이 하나될 수 있는 내실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 드림스타트는 2011년 개소해 관내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조여은 기자

대구콘서트하우스 '환희의 송가' 29일 공연

연말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클래식 공연이 대구에서 열린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오는 29일 그랜드홀에서 '환희의 송가'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공연은 베토벤이 청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작곡한 교향곡 9번으로 채운다.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도 지정된 교향곡 9번의 백미는 4악장 '환희의 송가'다.

교향곡 오케스트라에 사람의 목소리를 도입하는 등 전통을 깬 도전적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줄리안 코바체프가 이끄는 대구시립교향악단과 소프라노 서선영, 메조소프라노 백민아, 테너 한윤석, 바리톤 이동환 등이 솔리스트로 출연한다.

여기에 대구시립합창단과 구미·경산·포항시립합창단이 목소리를 더한다.

대구콘서트하우스 이형근 관장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이번 공연으로 연말을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경북도, 공익형 프랜차이즈 카페 출범

사회적경제 활성화
다양한 정책 발굴

경북도가 20일 칠곡군 북삼읍에서 공익형 프랜차이즈 카페인 'the 3 sector cafe' 출범식과 '경북도 청년괴짜방(디자인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the 3 sector cafe'는 경북도내 카페형 사회적기업과 현대그린푸드(현대백화점 그룹)가 협력하는 공익형 프랜차이즈 카페다. 경북도와 현대그린푸드가 지난 8월에 체결한 MOU 사업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현대백화점 VIP 고객에게 제공되는 세계3대 커피 브랜드인 달마이어 원두를 사용해 커피 품질과 맛을 보증하고, 소모품 공동구매 가격다운 등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 대한 경쟁력을 높였다.

이 카페는 내년 상반기까지 프랜차이즈 창업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회적기업 창업 희망자는 물론 취업 취약계층까지 완전 개방할 계획이다. 초기 창업비용이 6000만원 정도로 기존 프랜차이즈 카페 대비 창업비용부담을 상당부분 낮췄다.

경북도는 디자인 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이 카페에 청년괴짜방(디자인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청년괴짜방은 청년사회적 기업가가 창업경험과 실무 교육 등을 직접 제공하는 네트워크 공간으로 지난 8월 1호점을 경산에서 연데 이어 오는 26일에는 상주(로컬푸드 연구소), 내년 1월에는 포항에 문을 연다.

우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the 3 sector cafe와 청년괴짜방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네트워크이자 창업지원 공간으로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 청년 취창업 지원, 사회적기업과 대기업 협력사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경북서 '활활'

12월 24일부터 경북 순회
평창대회 성공 기원 세계속
경북 알리는 문화행사 준비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북지역의 성화 봉송레이스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안동시를 비롯한 6개 시군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함께 펼쳐진다.

지난달 1일 101일간의 여정으로 시작된 성화봉송은 54일차인 오는 24일 경북 영주에 도착한다.

422명의 성화봉송 주자가 참여하는 경북구간은 영주를 시작으로 25일 봉화, 26일 안동, 27일 구미, 29~31일 대구, 1월 1일 포항, 1월 2일 경주를 거친다.

도는 평창대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경북의 우수한 문화자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다채로운 축하행사와 이색 성화봉송을 추진한다.

충북에서 전달된 성화는 24일 영주 선비촌에서 100여명의 선비들의 환영속에서 선비촌과 소수서원을 돌며, 옛 선비의 모습을 담아 영주시내를 경유한 후 영주역에 안치된다.

성탄절인 25일에는 봉화의 산타마을을 찾아간다. 크리스마스트리와 산타복으로 가득 메운 산타마을 광장에서는 평창올림픽 성화 환영맞이 이벤트가 열리고, V트레인 이색봉송을 통해 백두대간 협곡의 절경을 담아낸다. 봉화군청에서 개최되는 축하행사에는 지역가수 공연과 보부상 소리 공연 등이 예정돼 있다.

26일에는 안동시내와 도청 신도시를 지나 하회마을에 도착한다. 하회마을에서는 '세계문화유산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만남'이란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차전놀이를 연출한 성화봉송, 양진당 성화맞이, 안동의 대표적인 전통불놀이인 선유줄불놀이와 하회별신굿탈놀이 등이 안동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게 된다.

27일에는 구미의 산업단지와 시내를 경유한 후 구미시청에서 도착한다. 구미에서는 무을농악, 오케스트라 관악행진곡, K-아리랑쇼 등 ICT융복합 전통춤연희 퍼포먼스가 진행돼 첨단산업 도시인 구미시의 과거와 오늘을 보여주게 된다.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는 성화는 1월 1일 포항을 지나간다.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지진으로 가슴 아팠던 시민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염원하고자 호미곶에서 해맞이행사와 연계한 성화봉송 특별이벤트가 열린다.

2일 경북 구간 마지막인 경주시로 향한 성화는 첨성대, 대릉원, 동궁과 월지, 불국사, 석굴암 등 역사문화유적 탐방루트를 따라 우수한 신라문화를 밝게 비춰주며,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설치된 성화대에 안치된다. 신라 천년 경주의 화랑무, 신라고취대 등 화려한 축하무대 속에서 선덕여왕 성화맞이를 끝으로 경북구간을 밝힌 평창 성화는 그 다음 지역인 경기도로 이동한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경북도를 밝히는 성화가 300만 도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가득 담아 평창에서 밝게 빛나길 기대한다"며, "경북의 우수한 문화가 세계 속으로 전파돼 대한민국을 알리고 평창대회가 성공적인 대회로 깊이 기억될 수 있도록 지방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경북도, 학자금 대출이자 전격 지원

대학생 1138명에게 1억여원
지원 사업 지속적 확대 추진

경북도가 올해 대학생 1138명에게 1억41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자지원 대상은 학자금 대출 당시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다자녀 가구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도는 지난 8-9월 대구 경북소재 대학교 학생으로 경북에 주소를 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접수한 1744건에 대해 중복지원자를 제외하는 등 최종 심사로 1138명을 지원대상자로 확정했다.

지원금액은 2012년 1학기 이후 학자금대출에 대한 2017년도 발생 이자분이다.

예상 외로 지원자가 많아 당초예산 1억을 초과하자 경북도는 신청자 전원을 지원하고자 41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처럼 호응도가 높아 도는 앞으로도 계속 시행한다.

내년에는 학자금 대출이자 6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유의자로 분류돼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졸업자에게도 연체 이자를 지원해 신용회복과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학업과 취업에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간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적십자회비, 나누면 희망이 됩니다!

김관용 경북지사 2018년도
적십자특별회비 500만 전달

김관용 경북지사가 20일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 500만원을 전달했다.

특별회비 전달은 내년도 적십자 회비모금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첫 번째로 참여했다.

적십자 회비는 재해 이재민 및 저소득층 구호사업, 사회봉사 지역보건·의료·혈액 사업 등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의 회비 모금 활동은 연중 추진되며, 2018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행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까지 진행하고 있다.

2018년도 모금 목표액은 30억원이며, 도내 94만 9000여 가구와 12만여 법인, 사업자, 학교 및 종교단체 등에 납부용지가 배부된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이번 포항지진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적십자사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헌신적으로 봉사 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민 여러분이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채울 수 있도록 적십자 회비 모금에 다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용 기자

경북도 '동해안권 산불방지센터' 유치해라

조주홍 경북도의원

조주홍(자유한국당·비례) 경북도의원은 20일 제296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건립되는 '동해안권 산불방지센터'의 지역 유치를 촉구했다.

조 도의원은 "산림청이 전국에서 산림자원이 가장 풍부한 곳으로 강원도와 경북도를 지목하면서 강원도에 산불방지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한 후 경북 동해안 지역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불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이다"며, "강원 산불방지센터 신축과 동시에 경북 동해안권 산불 대책도 함께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도의 경우 시·군 간 산불진화 헬기 이동시간이 최소 40여분 이상 소요되므로 '동해안권 산불방지센터'는 남쪽과 북쪽에 치우치지 않고 안동·청송·영양 등 내륙지역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최적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야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해안권 산불방지센터가 건립되면 경찰, 소방, 국방부, 기상청 등의 전문 산불방지 전담인력 22명 외 관련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창출되고 산불진화 헬기의 추가 배치와 국비 40%의 헬기 임대 지원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 행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용 기자

울진소방서, 소방관련법 강화된다

정기국회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통과

울진소방서는 지난 제354회 정기국회에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을 포함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이다.

소방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화재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했다.

아울러, 화재예방을 위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수립·시행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내용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을 추가해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자에 대한 벌칙이 종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로 벌금액을 상향조정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로프, 경보기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시설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했고, 기존의 영업장에 대해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추락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해, 소급적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에는 요즘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통시장을 소방청장이 특별관리 하는 대상에 추가해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 비밀누설, 성능인증 표시 위·변조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벌칙을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으로 위급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방해로 인한 공공 위해성 등을 고려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 5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했다.

윤영돈 서장은 "소방관련법 개정으로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삼 기자

달성署,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원 감사장 수여

현풍농협 본점 박해진 직원

대구달성경찰서은 20일 현풍농협 본점 박해진 직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공로로 감사장을 전달했다.

박해진 직원은 지난 12일 오후 12시 2분경 고객인 서 씨(78·여)가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피의자에게 속아 정기적금 1000만원과 자유저축예금 4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자 농협을 찾은 모습에 보이스피싱 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해 그 피해를 예방했다.

오완석 경찰서장은 "경찰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과 금융기관 직원들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관심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한 공동체 치안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이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달성경찰서는 앞으로도 금융기관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우리 마을 고문변호사'

대구 남구청, 무료 법률상담 '우리 마을 고문변호사' 위촉

대구시 남구청에서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주민들의 무료 법률상담을 위해 '우리 마을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우리 마을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1월 부터 시행되는 '우리 마을 고문변호사' 제도는 남구 주민 누구나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직접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을 하면, 대구지방변호사가 추천한 권역별 담당 변호사(4개권역, 총 8명)에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이담 회장도 참석했으며, 권역별 고문변호사로 △제1권역(이천, 대명2·5동) 기윤석, 이주현 변호사 △제2권역(봉덕1·2·3동) 이승익, 함상범 변호사 △제3권역(대명1·3·4·10동) 김재철, 전종필 변호사 △제4권역(대명6·9·11동) 강현구, 김종석 변호사를 위촉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기획조정실(664-2142)로 문의하면 된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앞으로 우리 마을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으로 법률 상담이 꼭 필요하지만 법률서비스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법률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수시로 상담 받을 수 있어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흥규 기자

연말연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꼭 확인하세요

도로교통공단, 인터넷 적성검사 갱신, 재발급 신청, 방문시간 예약 등 운전면허 서비스 제공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정해진 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주기별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주기별로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운전면허 취소자 21만 267명 가운데 5만 2943명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다. 이는 음주 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자 12만 799명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이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운전면허증 우측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청 이파인(e-FINE)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후 현장 수령지를 선택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고객편익 향상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사이트에서 인터넷 적성검사, 갱신, 재발급 신청 및 방문시간예약제 등 각종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등 인터넷 접수는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이며, 면허증을 분실했거나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 소지자는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누리집(www.koroad.or.kr) 또는 콜센터(1577-11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도로교통공단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편리한 운전면허발급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하 기자

대구환경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개소 적발

대기폐수시설 미신고 6개소 방진 덮개 미설치 3개소 폐기물 부정보관 1개소

대구지방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특별 단속한 결과 환경법규를 위반한 10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 연료 사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등 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방진벽·방진망·방진 덮개 설치, 세륜 살수시설 설치 여부 등을 주로 살폈다.

위반사항은 대기폐수시설 미신고 6개소, 방진 덮개 미설치 3개소, 폐기물 부정보관 1개소 등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적발된 10개소의 사업장에는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또 고발대상 사업장 9개소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벌여 미세먼지 줄이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안동 점포서 화재 40대 남성 숨져

20일 오전 0시 34분께 안동 태화동의 단층 짜리 점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시간 10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점포 세입자 A(4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 165㎡와 집기류 등을 태워 45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안동소방서는 소방차 12대와 소방관 27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용구 기자

대구 수영장, 화학가스 누출…직원 2명 치료중

달서구 호산동 한 스포츠센터 수영장 기계실에서 가스 누출

대구의 한 수영장에서 세제와 염산이 섞여 화학 가스가 누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대구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9분께 대구 달서구 호산동 한 스포츠센터 수영장 기계실에서 가스가 누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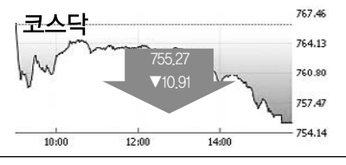
이 사고로 수영장 직원 2명이 가스를 흡입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수영 강습을 받던 시민 등 10여명도 수영장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특수구조대 등 인원 10여 명과 장비 4대를 투입해 안전조치 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영장 지하 1층 기계실

청소 중 한 직원이 실수로 세제 100ℓ가 담긴 통에 청소용 염산 8ℓ를 쏟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계실 직원들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



2017 정유년 경북을 빛낸 최고의 기업인은?

경북도 '투자유치 대상' 최우수 타이코에이엠피

경북도가 20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2017년 경북도 투자유치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의 투자유치 최우수상에는 경산의 타이코에이엠피㈜, 우수상에는 포항의 ㈜에코프로지이엠, 구미의 아주스틸㈜, 김천의 지텍㈜, 칠곡의 ㈜케디엠, 특별상에는 군위의 ㈜티시그린, 문경의 ㈜월드에너지, 상주의 ㈜디에스이, 경주의 ㈜텔스타 등 9개 기업이 선정됐다. 구미시와 고령군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영주시 강신호, 구미시 김보경 씨가 최우수 공무원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업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타이코에이엠피㈜는 경산2단지내에 4130억원을 투자한 외투기업이다.

수출과 내수 물량이 늘어 개발중인 경산4단지내 부지를 지난 2015년에 우선분양 받아 올해에만 47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고 정규직 86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우수상을 수상한 ㈜에코프로지이엠은 모(母)기업이 청주의 에코프로다. 지난 4월 중국과 합작으로 ㈜에코프로지이엠의 법인을 설립해 포항부품소재전용단지에 242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고 정규직 44명을 채용했다. 2021년까지 1500억원을 투자, 신규인력을 500여명까지 추가채용한다.

㈜디에스이는 LED램프를 생산하는 업체로 2010년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했으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후 상주로 공장을 이전했다.

1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고 정규직 30명을 신규 채용한 공로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경북도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다양한 유인책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2016년 연속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우수기관에 선정돼 국비를 기존보다 5% 더 받아 지방비 부담을 절감했다.

외국인 투자유치에서도 2016년도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민선6기 동안 19조6278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로 4만487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20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7년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시상식에서 경북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의 관계자들이 수상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관용 지사는 "글로벌 경기 불안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해 준 기업과 투자유치에 힘써 주신 시군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도와 시군, 기업이 합심해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성용 기자

지역아동 위해 '사랑의 스틸박스' 선물

포스코 포항제철소 봉사단 저소득·지진피해 아동 전달

포스코 포항제철소 봉사단이 20일 포스코 본사 대회의장에서 포항지역 저소득층과 지진피해 아동의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사랑의 스틸박스' 선물 세트를 제작했다.

포스코 1%나눔재단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안동일 포항제철소장, 이대우 노경협의회 대표를 비롯해 포스코패밀리 봉사단 100여명이 참여했다.

문명호 포항시의회의장, 윤광수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김창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본부장 등 사외 인사들도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봉사자들은 침낭, 문구세트, 장갑, 목도리, 수면바지, 수면양말, 손난로, 보온병, 과자 등을 상자에 정성스레 포장해 1,100여개의 선물 세트를 완성, 포항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이 중 300세트는 지진 피해지역 아동들에게 우선 배정되어 흥해지역 아동센터와 대피소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에게 지급된다.

안동일 포항제철소장은 "오늘 제작한 사랑의 스틸박스가 세밑, 지역아동센터의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한 포스코패밀리 봉사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앞서 포항제철소는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로 봉사시너지를 높이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7년 포스코패밀리 봉사상'도 수여했다. 이 행사에서 포항제철소는 포스코패밀리사와 포스코 인증 우수공급사를 대상으로 자매결연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거나 지역발전에 공헌한 6개 단체와 8명의 직원을 선정해 포상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강동진 기자

"온(溫)맵시로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요"

한국에너지공단 대경본부 동절기 온맵시 계몽 운동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시, 대구기후·환경네트워크 등 지역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20일 오후 3시 동대구역사에서 동절기 온맵시 계몽 운동을 가졌다.

계몽 운동은 온맵시 문화를 통한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 및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공단은 유관기관과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맵시를 홍보하고, 저탄소 생활실천 서약을 했다.

온(溫)맵시는 에너지소비가 큰 겨울철 실내온도를 2℃ 낮추고 체감온도는 2℃ 높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편하고 따뜻한 옷차림 또는 옷 입는 방식이다.

한국에너지공단 대경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단은 에너지절약 의식 제고를 위해 계몽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DGB대구은행 경주영업부, 이웃돕기 성금 기탁

DGB대구은행 경주영업부는 지난 19일 경주시청을 방문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 2018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으로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DGB대구은행 임·직원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기부한 '임직원 급여 1% 사랑나눔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마련됐다.

대구은행 경주영업본부는 매년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경주지역 저소득가정을 위한 사랑의 연탄 전달, 김장김치 전달, 독거노인 집수리 및 저소득아동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며 지역 내 나눔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문호 시민행정국장은 "대구은행 서라벌본부 임직원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마련된 성금은 경주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사랑으로 전달될 것이며 앞으로도 이웃사랑 실천과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용찬 기자

청도군, 올해 농정업무 큰일 해냈다!

박준규 미드미 영농조합대표 경북농업인 대상 수상 영예

청도군의 2017 농정업무가 단연 돋보였다.

농부는 물론, 군민 모두 행복한 부자농촌 구현에 최선을 다한 결과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과 어려운 농업 환경에서도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농업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 군수는 "2018년 새해에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판매, 유통가공 시설 및 로컬푸드 판매장 확대 설치,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농산물품질관리원 청도사무소 신설, 6차 산업을 더욱 활성화 해 군민 모두가 잘 사는 부자농촌 만들기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의 지역농업발전선도인상 수상

청도군은 FTA 등 농업 환경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복숭아·감 등 지역특산물 홍보와 판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농산물 유통활성화지원사업, 귀농귀촌 등 대도시 인구유입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농업관련 기관장 및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 억대농가 1000호 육성, 농협과 상생·협력했다. 이 결과 돌아오는 농촌, 행복한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 온 점이 높게 평가돼 청도군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올해의 지역농업발전 선도인 상을 받았다.

▣박준규씨 경북농업인대상 수상

박씨는 미드미 영농조합대표다.

그는 지역특산물인 청도복숭아의 조기 출하를 위해 복숭아 시설하우스 4997㎡를 설치했다. 금성분을 함유한 기능성복숭아를 생산해 연간 1억4000만원의 농가소즉 증대는 물론, 복숭아, 사과 재배기술을 연 300명 이상의 농가에게 기술교육 전파로 과수화훼부분에 경북농업인대상을 수상했다.

▣2017 청도농업인대상 수상

박광식씨는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10.6ha의 벼 재배와, 고급유기농 쌀 생산,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재배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원예특작 부분에는 청도읍에사는 진종호씨가 차지했다.

진씨는 복숭아 재배에 최신재배시설 Y자 팔매트 수형 개선, 지주대에 관수시설을 설치, 당도높은 복숭아 생산, 인체에 해가 없는 친환경 약재사용, 복숭아 농가컨설팅 및 신기술 보급에 앞장섰다.

이준수(매전면)씨는 농산물가공유통부분 청도군농업인 대상을 받았다. 그는 고품질의 감 가공품 생산을 통한 고부가 가치화유도, 감가공품 수출 및 판로 확대와 시장 개척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한몫했다.

▣농정업무평가 우수 농정과

농정과는 경북도 농정업무 평가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정책, FTA농식품 유통, 친환경농업, 농촌개발로 역점시책과 특수시책 등 농정업무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인정받았다.

농업기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126개 지방자치단체의 190개 지역특구를 대상으로 2016년도 추진전략, 운영실적, 사업성과의 각 부문에서 탁월한 성적으로 현장평가, 전문가평가, 정책평가 및 PPT발표심사의 3단계의 평가과정을 거쳐 우수지역특구 로 선정됐다. 포상금 3500만원을 받았다. 채종갑 기자

테크노폴리스-수성의료지구, 외투유치 확대

디스플레이·반도체생산 제조설비 자동차부품 R&D 분야 투자 협약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오전 11시 30분 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 김연창 경제부시장, 이인선 청장, ㈜오에스티 권영길 대표, 대영전자(주) 백서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테크노폴리스와 수성의료지구 경제자유구역에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생산 제조설비 공장과 자동차부품 R&D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하는 투자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에 테크노폴리스와 수성의료지구에 각 1개사의 외투기업을 유치함으로서 테크노폴리스지구에 12번째 외투기업을, 수성의료지구에는 2번째 외투기업 유치를 성사시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총 11개 국가로부터 22개의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끌어 내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구 지정 후 해제 위기에 있던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는 시기여서 이번 외투기업 유치 성과는 현재 활발히 사업지구를 조성하고 있는 2개 지구에 대한 외투유치활동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테크노폴리스에 입주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오에스티(대표 : 권영길)는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지역의 성서공단 및 달성공단에 입주해 생산활동을 꾸준히 해 LG전자 등에 생산품을 납품해 오던 중 중국의 대형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 부지확장 필요성이 있어, 중국 파트너사의 750만 달러 투자를 포함해 155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 기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공장확장으로 기존에 경기 평택과 충남 천안에 있던 임대공장 16,500㎡에 있던 인력과 장비를 흡수해 통폐합함으로서 향후 신규고용 인원 120명 외에 추가로 고용창출이 되는 효과가 예상되어 청년고용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영전자(주)(대표 : 백서재)는 베트남 NTD 그룹과 손을 잡고 합작기업을 설립키로 하고 수성의료지구에 대영전자(주) 본사를 이전하고, 광주, 수원, 평택등에 나뉘어져 있던 기업부설연구소를 동 지구에 통합R&D센터로 설립하기로 했으며, 외투 550만불을 포함해 총 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창출되는 신규고용 예상인원은 250명에 달해 지역인재를 상당수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구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이전해 오는 기업들에게 지역의 유망 기업들과도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장준공과 본사, R&D센터의 착공에서부터 입주까지 빈틈없이 지원함으로써 어렵게 투자유치를 결정하고 우리 지역을 선택한 이들 기업에게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는 동시에 글로벌 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인선 청장은 "지난 15일 경산지식산업지구에 입주할 외국인 투자기업에 이어 테크노폴리스지구와 수성의료지구에도 우수한 외투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외투유치는 미국, 일본, 유럽 위주의 투자유치 일변도를 벗어나 중국과 베트남의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 추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투자유치계획을 세워가겠으며 우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진희 기자

"자연 치유도시 포항, 그린웨이 사업 적극 추진"

Green Way 범시민추진위원회 연말결산·내년 신규사업 보고회

포항시는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연말결산과 2018년 신규사업 보고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포항 Green Way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올 한해 주요성과에 대한 이대식 그린웨이 추진단장의 설명을 시작으로 추진 중인 사업 35건을 비롯해,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의 지속성을 위해 신규로 발굴한 15건의 사업에 대해 시민 사회단체장들로 구성된 100명의 포항 그린웨이 범시민추진위원들이 서로간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017년은 '살기 좋은 녹색생태도시 포항'으로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의 뜻과 함께한 한해였다. 포항시는 3000여명이 참석한 시민과 함께한 녹화운동 '2000만그루 생명의 나무심기 운동 선포식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240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지난 6월 '포항 그린웨이 포럼 개최'와 10월에 열린 '포항 그린웨이 아카데미'를 통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포항'을 함께 만들어 가는 등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도 이끌어 냈다.

이밖에도 천만송이 장미도시를 위해 영일대 해수욕장 등 장미원 17개소에 장미 2만 873본을 식재하면서 아름다운 도심 분위기 조성을 비롯해 포항송도 해상공원,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형산강 에코생태 탐방로 등 13건의 그린웨이 전략사업을 완료하는 등 초록빛 넘실대는 녹색생태도시 실현과 사람과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시민이 행복한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새롭게 발굴한 15건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센트럴 그린웨이 사업으로는 △포항공항 완충지역 공원화 사업 △냉천고향의 강 정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해도근린공원 도시숲 조성 등 7건으로 도심권의 녹색네트워크를 구축에 나선다.

오션 그린웨이는 △영일만 해오름 탐방로 조성 △신라 문화탐방 바닷길 △해안둘레길 연계 탐방로 정비 3건으로 해안 경관자원을 이용해 관광활성화를 촉진한다.

에코 그린웨이는 △포항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도심지 생태통로 조성 △포항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농경철기문화 농폰테마공원 조성 △포항환경교육센터 운영 5건의 사업으로 복합산림인프라 구축으로 산림권역의 네트워크를 강화해갈 계획이다.

포항시는 지진피해로 인한 침체에서 벗어나 빠른 시일내에 안전한 녹색친환경 도시로 돌아가도록 '시민이 안전하고 희망이 꽃피는 Green Way 전략'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침체된 현재 상황을 빨리 벗어나 원래의 활력 넘치는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으로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라며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쳐있는 심신을 자연에서 치유할 수 있도록 그린웨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진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성화봉송 축하행사

새달 2일 1·2 엑스포공원광장 올림픽분위기·축제의 장 조성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성화봉송 축하행사가 새달 2일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경주엑스포공원광장에서 펼쳐진다.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자 이벤트인 성화봉송은 지난달 1일 인천국제공항을 시작으로 101일간의 여정으로 진행되는데, 경북에는 영주, 봉화, 안동, 구미, 포항시를 거쳐 경주시에는 2일 오전에 도착해 첨성대, 동궁과 월지, 신라대종 일대를 지나 오후 5시 30분 경주엑스포공원에 도착한다.

이날 성화봉송은 다음달 2일 경북을 떠난 후 경기, 인천, 서울, 강원도를 거쳐 다음달 9일 강원도 평창에 도착할 예정이다.

성화봉송 축하행사에는 올림픽분위기 조성과 시민들이 성화봉송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조성키 위해 선덕여왕의 성화맞이 퍼포먼스, 신라고취대, 가람예술단, 비보이공연, 화랑무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한편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성화봉송이 진행됨에 따라 새달 2일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 경주시 일원에서 교통통제가 실시된다.

실내체육관~예술의전당~금장네거리~시립도서관~세무서~경주역~법원~중앙시장~서라벌문화회관~오릉으로 이어지는 1구간은 오전 11시 33분부터 오후 1시 43분까지 교통이 전면 통제된다.

박물관네거리~동궁과월지~첨성대~대릉원 돌담길~신라대종~팔우정삼거리~월성동주민센터~선덕여고~분황사로 이어지는 2구간은 오후 3시 7분부터 오후 4시 22분까지 교통이 통제된다.

마지막으로 동궁원~한화콘도~현대호텔~경북관광공사~화백컨벤션센터~천군네거리~엑스포공원으로 이어지는 3구간은 오후 5시 8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교통이 통제된다.

시 관계자는 "천년고도 경주에서 성화봉송 지역축하행사가 개최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많은 시민들이 올림픽분위기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다"라며 "올림픽 성화를 맞이하는 감동의 순간을 시민들이 함께 즐기시기를 바라며, 해당구간의 교통 통제에 대해서 불편하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윤용찬 기자

경주시, 전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행복한 일터' 만들기

경주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나섰다.

시는 20일 알천홀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통합폭력예방전문강사인 최현주 모아세연구소 대표를 초빙해 '아름다운 공존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UP'을 주제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을 비롯한 각종 폭력에 대한 사전예방과 구제절차 등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성 인지에 대한 가치관 정립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공존하는 밝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현주 강사는 우리사회 문화와 폭력의 연관성, 폭력에 대한 통념을 비롯해 성별에 기초한 다양한 폭력문제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행동과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직원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특히,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 조직 문화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 사회적 불평등과 편견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는 개개인의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순복 복지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전 직원 대상 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서로 존중하는 건전한 직장문화를 통해 즐겁고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포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내년 2월부터 동행콜 30대 운영 즉시콜 위주 전환…이용자 확대

포항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추진계획,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보고, 개선의견 등 논의를 위해 '포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현행 20대에서 10대 증차해 법정대수 30대 확충하고 내년 2월부터 운영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장애 1·2급 전 유형으로 이용대상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예약제에서 즉시콜 위주로 전환해 차량 회전율과 일일 이용건수를 높일 방침이다. 운영시간도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 운행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확정지었다.

포항시는 2015년 4월 차량 4대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개소해 현재 20대 운행하면서 수렴한 일부 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에게 이동편의 및 복지증진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황영만 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관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특별교통수단이 본연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동진 기자

울릉군수 부인 황순남 여사 지진현장서 봉사

담장도색·도배 집수리 구슬땀

최수일 울릉군수의 부인인 황순남 여사가 울릉군종합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배석오) 회원 15명과 함께 매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 동안 지진피해 현장에서 집수리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추운 겨울 조금이라도 빨리 이재민들이 집안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진피해를 입은 북구 두호동의 1가구 담장 도색과 남구 오천읍 1가구 도배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황순남 여사는 "기온이 많이 떨어진 날씨에 지진피해 입은 포항시민이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센터 회원들과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

황순남 여사는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 소속으로 평소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에도 자주 참여해 왔으며, 울릉군새마을회,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으로 평소에도 봉사활동을 많이 해왔다.

주요 봉사활동으로는 김장김치 나눔봉사, 연탄배달봉사, 장애인, 독거어르신 밑반찬봉사, 환경정화활동, 노인의 날, 어린이날 홍보부스활동 참여 등 다양한 활동 뿐만 아니라 너그러운 성품으로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강동진 기자

경산 청도
영덕 울진
청송 영양
울릉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NH농협경산지부와 관내 농·축협 1000만원 기탁

NH농협경산시지부와 경산관내 농·축협은 지난 19일 경산시청을 방문.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전달 했다.

경산지역 이웃돕기 성금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NH농협경산시지부와 경산관내 농·축협이 함께 기부하는 것으로 경산시에서 펼치고 있는 '희망 2018 나눔 계몽 운동' 확산에 앞장 설 것으로 기대된다.

변창상 기자

영덕군공무원직장협의회 복지기금 200만원 기탁

영덕군공무원직장협의회는 영복지재단설립을 위한 복지기금 및 기탁금으로 200만원을 전달했다.

영덕군공무원직장협의회는 농촌일손돕기, 연탄배달, 포항지진 피해지역지원, 교육발전기금·성금 모금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쳐 왔다. 김승건 기자

경산새마을지도자대회

(사)경산시새마을회는 지난 19일 경산시민회관에서 새마을가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의 새마을운동 재도약과 화합을 위한 '2017 경산시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가졌다.

대회는 올 한 해 동안 경산시 새마을운동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동안의 노고 치하와 새마을가족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 됐다.

변창상 기자

영양군, 최고의 빙질 무료스케이트장 개장

안전성 높아 겨울철 가족단위 명소 각광

전국 최고 빙질의 천연 스케이트장인 영양 무료스케이트장이오는 23일 개장한다.

영양 무료스케이트장은 일월산에서 발원하는 반변천의 수려한 자연이 그대로 묻어나는 천연 스케이트장이다.

빙질이 우수하고 얕은 수심으로 안전성도 높아 겨울철 가족단위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양 빙상장은 무료로 스케이트(피겨, 스피드스케이트). 얼음썰매, 얼음자전거, 얼음킥보드, 얼음열차 등을 대여, 부담 없이 즐기고 꽁꽁 언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휴게실도 준비돼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오후4시까지 이다.

운영은 내년 1월 30일까지다.

영양군은 오는 26-28일까지 3일간 스케이트 강사를 초빙,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스케이트 교실을 운영한다.

영양군 체육회 직원들이 상주해 스케이트장 및 용품을 점검하고 사고예방활동을 펼쳐 안전하고 즐거운 겨울추억만들기에 적합한 명소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권영택 영양군수는 "최근 몇 년간 따뜻한 날씨로 인해 제때 스케이트장을 개장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는데 올해는 제때 개장해 군민들이 휴식공간 및 추억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더 행복한 울진 건설 첫 걸음은 친절

뚜렷한 가치관 가지고 공무원 자세 확립 중요

울진군의 '2017 군민감동 직원친절 교육'이 20일 600여 직원을 대상으로 엑스포공원 영상관에서 열렸다.

교육은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전 직원이 함께 고민하고 마음속의 친절을 군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복한 공직생활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선 임광원 울진군수는 △주인의식을 가져라 △뚜렷한 가치관을 가져라 △공무원의 자세를 확립하라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하라 △지도자의 자질을 가져라등 공직자가 가져야 할 5가지의 생활실천 조건을 제시, 직원들이 행복해야 군민도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원인의 마음으로 봅니다'란 주제로 이어진 2부 교육은 기존의 일방향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 다양한 상황을 참여형 연극으로 연출, 마치 현장에서 민원을 직접 대하는 형태로 진행해 직원들의 몰입을 이끌어 냈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다"는 평가와 함께 "공직자로서 군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친절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공직자상을 가슴에 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이번 친절교육이 직원들의 친절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고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더욱 보람 있는 삶을 살고 더 행복한 울진을 만들어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형삼 기자

청송군, 건강 증진 교육 으뜸

청송군보건의료원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청송읍 건강위원회와 함께 내년 1월 3-19일까지 청송읍내 13개 마을 경로당을 순회, 건강증진 교육 및 소규모 걷기 행사를 한다.

건강증진 교육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차례 표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 내년에는 더욱 확대한다.

고혈압·당뇨병관리를 위해 혈압·혈당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별 교육과 상담을 가진다.

올바른 칫솔질 교육 및 시연, 틀니관리법, 오십견 및 관절염 완화를 위한 스트레칭, 금연유도를 위한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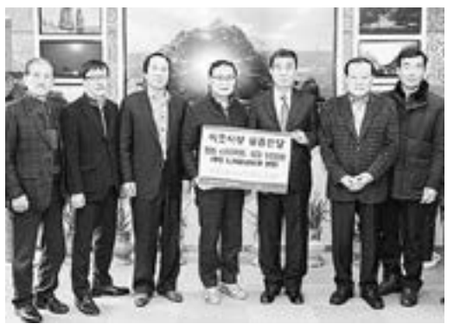
건강증진 교육 후 걷기실천율 향상을 위해 마을별로 지정돼 있는 걷기코스를 한바퀴 걸어보는 소규모 걷기행사도 가진다.

구현진 원장은 "주민들이 알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건강증진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마을별 걷기지도자를 중심으로 걷기 동아리를 연중 자체적으로 결성·운영해 걷기실천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구 기자

이웃돕기 양곡(10Kg) 150포 기부

울릉농업협동조합



울릉농업협동조합은 지난 18일 울릉군청을 방문해 '희망2018 나눔 계몽운동' 이웃사랑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울릉농업협동조합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내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동참하기 위해 양곡(10kg) 150포(일금 500만원 상당) 및 성금 50만원 을 기부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 아쉬운 때에 이웃돕기에 앞장서서 성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하며 나눔문화가 더욱 활성화돼 군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기부된 양곡(10kg) 150포는 관내 저소득층 150세대에 전달, 성금은 관내 입양아동에게 전달된다. 정윤환 기자

청도군, 동곡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완공

주민 쾌적한 삶 유지 '물' 복지 실현 최선 동창천 수질개선 기여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 동곡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300톤/일 600톤/일)가 지난 16일 완공, 정상가동했다.

동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2015년 12월 착공, 지난 16일 까지 2년간 총공사비 37억원, 처리량은 총 600톤/일의 규모로 완공됐다.

기존 동곡 공공하수처리장은 300톤/일 규모로 금천면 동곡 지역과 신지1리 지역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했다.

하지만 금천면 임당1·2리 방지리, 운문면 대천리 방지리 일원 300톤을 추가로 유입시켜 처리하고 있다.

산동지역 주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게돼 동창천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천리 주민들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노후화로 민원이 많았는데 하수처리장 증설 완공으로 인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크게 기뻐하고 있다.

청도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관거사업 확충으로 아름다운 생명고을 청도에서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채종갑 기자

구미시·고령군, 경북도 투자유치 '최우수' 선정

시·군부문 최우수 기관 표창
아주스틸㈜ '우수' 기업 선정

▣ 구미시, 6년연속 수상의 영예

구미시가 20일 경북도청 안민관에서 열린 '2017 경북도 투자유치대상' 시상식에서 시·군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기업부문에서는 가전 내·외장재용 강판을 생산하는 아주스틸㈜가 투자유치 우수상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아주스틸㈜는 구미국가4단지에서 2차 철강제품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올 한해 100억원의 신규투자와 50여명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글로벌 선도기업이다.

또한, 투자유치 최우수 공무원으로 투자통상과 김보경 주무관이 선정됨으로써 2017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모든 부문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구미시는 '경북도 투자유치 대상' 제도가 만들어진 2012년 이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 6년간 연속으로 투자유치 부분에서 기관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현재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도레이의 탄소섬유, 이차전지 분리막을 비롯해 자동차전자장치, 전자 의료기기 등 소재부품 산업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 국내외 기업의 새로운 투자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일본, 독일 등 부품소재강국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추진해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도레이BSF한국(유)의 리튬이온전지 분리막 공장증설에 3039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 산업 중심의 신규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었고,

2017년 8개사 8539억원의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포함, 총 1조262억원의 투자로 민선 4기(2006년) 이후 지난 10년간 16조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뤘다.

이처럼 구미시의 높은 투자유치 성과의 비결은 다양한 기업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맞춤형 사후관리 및 신속한 기업애로사항 처리를 통한 신뢰구축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국내·외 첨단산업 중심 기업 유치와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구미시는 지금의 변화된 산업 환경을 적극 활용, 국내·외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령군, 산업도시로 각광

고령군은 20일 경북도청 안민관에서 '2017년 경북도 투자유치 대상' 최우수 군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경북도 투자유치대상 평가는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한 투자기업 및 시·군, 공무원 등 3개 부문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우수시책, 투자 활성화 노력 등 다양한 분야의 추진실적을 반영해 평가됐으며, 고령군은 최우수상을 수상해 도지사 표창과 함께 시상금 600만원을 받았다.

고령군은 투자양해각서 체결(MOU) 등 투자실적 항목과 투자유치대상 기업 추천, 투자유치 설명회 공동 참여 등 도정협력도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 외에도 투자이행 및 고충처리와 같은 사후관리 항목, 투자유치 우수사례 및 투자유치 활성화 노력 등이 수상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고령군은 영호남의 관문에 위치해 남부내륙광역물류유통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현재 12개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거나 운영 중에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도내 1위이며 사업체 증가율도 도내 3위로서 투자가치가 보장되고 미래가 있는 기업하기 좋은 산업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이은진·조여은 기자

구미 김천 영천 고령 군위 성주 칠곡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 크리스마스선물 전달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19일 김항곤 군수 및 임원, 회원 등 4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관내 소외계층 아동과 회원 자녀들에게 전달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손수 포장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맑고 순수한 동심을 가진 어린이들이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다.

한편,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매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고자 연탄, 이불, 라면 등의 생필품이나 사랑의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박노균 기자

영천시 일자리경제과 직원 훈훈한 이웃사랑 나눔 실천

영천시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이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추운겨울을 녹이는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영천시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은 연말을 맞아 자매결연 마을인 완산동의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생필품 및 내의를 전달하고 집안 청소를 돕는 등 가족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또 성탄을 맞아 수급 가정의 미취학 어린이를 위해 직접 손으로 작성한 희망카드를 전달해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다.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은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농소면 마을별 경로당 떡국나누기 행사 가져

김천시 농소면에서는 연일 한파주의보로 매서운 추위가 계속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입석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12개 마을 경로당에 떡국을 전달해 따끈한 떡국잔치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떡살과 떡국 재료를 경로당에 전달하고 마을 부녀회들이 직접 끓인 떡국을 나눠 먹으며 15만 인구 회복운동 및 겨울철 산불예방, 체납세 납부협조 등 당면한 시정사항을 홍보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경청하는 등 주민과 면 직원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은진 기자

성주군, 경북도 중소기업시책 평가 '최우수'

4년 연속 표창 수상

성주군은 경북도에서 실시한 '2017년 중소기업시책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2014년 이후 4년 연속 표창을 수여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평가의 기준은 중소기업 육성계획, 자금지원, 공공구매, 애로해소, 기타 수범사례 등 5개분야 16개항목으로 경북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비교,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성주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사유는 1사 1촌 자매결연 추진으로 기업과 주민이 상생발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시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분기별 지역발전 우수기업을 선정·방문해 격려함으로써 기업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경북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관내 우수기업체를 적극 추천한 결과 ㈜영창케미칼은 수출액 2000만불을 달성해 대통령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경북도 Pride상품에 선정됐으며, ㈜일성산업은 경북도 공동브랜드인 실라리안 제품 선정 및 신성장기업으로 선정됐고, 중소기업 대상에 ㈜신독이 선정되는 등 매년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

박노균 기자

김천시, 조기발주 합동설계단 운영

'2018 건설사업 조기발주 합동설계단' 발대식 가져 일자리 넘치는 SOC 기반 시설 구축에 역량 집중

김천시는 지난 19일, 2층 회의실에서 내년에 시행할 각종 건설사업의 조기발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8년 건설사업 조기발주 합동설계단' 발대식을 가졌다.

합동설계단은 건설안전국장을 단장으로 시 산하 토목직 공무원 79명을 5개반으로 편성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민선6기 공약사항인 도로·하천·상하수도·도시 및 농촌개발 등 3297억원 규모로 2018년도 전체 예산대비 33%를 차지한다.

내년도 건설사업 총건수는 1216건으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설계는 총 861건으로 전체 건수대비 71%정도로 토목분야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확인과 주민의견을 들어 측량 및 설계를 하고, 대형 및 특정사업 355건에 대해서는 용역설계를 실시하게 된다.

우리시에서는 내년도 국가예산 중 SOC사업 예산삭감으로 지역경기가 꽁꽁 얼어붙을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체예산을 많이 투입해 기업하기 좋고 일자리 넘치는 건설복지를 실현하고자 관내 SOC 기반 시설 구축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예산 1조원시대를 맞이해 김천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와 연계한 '지역도로 문제해결 알고리즘 시스템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주제로 도로관리 신산업창조 신기술개발 교육도 함께해 기술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민선6기 공약사업의 철저한 마무리와 동절기 부실시공 방지, 안전대책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설계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진 기자

영천시, 치매극복관리 도내 최우수 기관 입증

경북도 치매극복관리사업 성과 대회서 최우수상 수상

영천시가 치매극복관리 부분에서 도내 최우수 기관임을 입증했다.

지난 19일 경북도 주관으로 개최된 2017년 경북도 치매극복관리사업 성과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대회에서 영천시는 치매보듬마을조성 및 운영에서 '사회적가족만들기' 주제로 어르신과 치매극복선도대학의 1:1 일촌맺기, 가족소풍, 안부전화 드리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된 우수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치매극복관리사업 성과 대회는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환자등록수, 치매홍보, 치매서포터즈 양성, 치매쉼터운영, 치매가족자조모임, 치매보듬마을 조성, 치매극복 자체사업' 등에 대해 평가하고, 치매극복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과 사업별 우수분야에 대한 시상, 우수기관 사례정보공유, 18년 치매극복관리사업 추진방향 등의 내용으로 개최됐다.

조명재 보건소장은 "내년에는 지역의 치매환자와 가족지원을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해 치매예방관리사업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지난 5월 13일 제4회 경북 치매극복가족걷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치매극복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긍정적 인식확산에도 앞장선 바 있다. 최은하 기자

칠곡군, 2018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증 수여

모범음식점 91개소 지정

칠곡군은 좋은식단 확대보급으로 위생수준 향상 및 친절서비스에 앞장서 온 모범음식점 91개소를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지난 19일 군청 강당에서 91개업소에 대해 지정증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모범음식점 선정은 총 110여개의 신청업소에 대해 엄격한 현지 실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

이들 업소는 향후 1년간 모범업소 표시판을 걸고, 칠곡을 찾는 방문객과 군민들에게 칠곡의 맛과 친절, 청결한 서비스, 녹색음식문화 조성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전도사 역할을 하게 된다.

모범업소는 1년간 위생 감시 면제,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 상·하수도료 감면(30%), 쓰레기봉투 등이 지원된다.

이날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발생감소, 영업활성화 등 고품격 외식문화 확립과 위생등급제 정착에 따른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박노균 기자

군위군다문화센터 '아이와 함께 크는 엄마' 종강

이중언어 환경조성

군위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주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아이와 크는 엄마' 프로그램을 지난 15일 종강했다.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은 두 가지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다문화 자녀들에게 두 개의 언어를 보다 친숙하게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달 15일부터 부모교육 2회기, 이중언어를 이용한 북아트교육 8회기를 진행했다.

올해는 다문화 부모들에게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이중언어를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이중언어를 이용한 북아트 교육을 통해 아이가 두 가지 언어에 친숙해지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교육했다. 박재성 기자

안동 영주
문경 상주
봉화 예천
의성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영주적십자병원, 내년 상반기 개원 가시화

진료과목, 수탁기간,
수탁권한, 세부사항 합의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
포함 종합병원으로 개원

영주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적십자병원이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종합병원으로 내년 개원이 가시화 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영주시와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수차례 만나 많은 시간동안 협의를 했다. 병원을 조속히 개원해 영주시민들의 응급의료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하고 최근 합의에 도달했다.

시 관계자는 "영주적십자병원 건립은 낙후된 지자체 병원 설립의 첫 사례인 만큼 합의점을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됐다"며, "진료과목, 수탁기간, 수탁권한 등 필요한 부문에 대해 추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개원추진단을 영주에 파견해 병원장 선임, 의료인력 채용, 의료장비 설치, 시험진료 기간 등을 거쳐 내년 개원을 목표로 준비에 들어간다.

시는 적십자병원 개원으로 24시간 응급진료와 입원실을 갖춘 소아청소년과 운영으로 그동안 병원 진료를 받기위해 먼 곳까지 가야했던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영주적십자병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공공의료기능 및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의료안전망 기능 수행을 위해 영주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으로 건립해 대한적십자사가 맡아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경북도, 영주시, 대한적십자사 등 4개 기관이 영주적십자병원 운영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한 후 총사업비 538억원(병원건립 452, 의료진숙소 38, MRI설치 20, 부지매입 28)을 들여 지하1층, 지상5층, 152병실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신축해 지난 6월 준공했다.

특히 영주적십자병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예산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병원 운영에 따른 적자 발생 시 영주시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전국에서 운영되는 첫 사례이다.

강석좌 보건소장은 "영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영주적십자병원의 성패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에 달려 있다"며, "병원 개원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전상기 기자

안동시청, 2017가족친화 인증기관 선정

안동시청이 여성가족부로부터 '2017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에 선정돼 19일 시청 웅부관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가족친화인증제란 가정생활과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안동시청은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Family-Day 운영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의 적극 권장 △ 직장어린이집 운영 △유연근무제 실시 △모유수유실 설치운영 △직원 휴양시설 운영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 출산육아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 가족친화 경영을 실천해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일과 가정이라는 두 가지가 모두 만족돼야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안동시청이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관내 민간 기업까지 제도가 확대돼 안동시를 가족친화도시로 만들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

이제는 문경농특산물 구입도 스마트폰으로

문경시, 인터넷·모바일
농특산물 쇼핑몰 개장

문경시가 스마트폰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쇼핑몰과 모바일웹 서비스를 새롭게 준비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스마트폰 내 포털사이트에서 '새재장터'를 검색해 클릭하면 스마트기기 안에서 문경시 농특산물 쇼핑몰을 만나볼 수 있다.

품목은 한국지방브랜드 경쟁력지수 평가에서 특산품부문 1위로 선정된 전국 최고 브랜드 농산물인 문경사과, 문경오미자, 문경약돌돼지 등 문경의 우수한 농특산물 210여 품목이다.

앞서 지난 19일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에서는 문경시와 생산자단체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경시 농특산물 쇼핑몰 '새재장터' 인터넷 및 모바일 쇼핑몰 개장식을 갖고 판매에 들어갔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이번 문경농특산물의 인터넷과 모바일 쇼핑몰 개장을 통해 농업인들에게는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문경농특산물을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문경새재직판장과 철로자전거 진남역사에 문경지역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가 가능한 무인판매시스템(디지털사이니지)을 설치했다.

이곳에서는 오미자농장과 문경8경 등의 명소를 가상현실(VR) 속에서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가상현실(VR) 프로그램도 마련해 문경의 관광지와 문경농특산물을 더욱 재미있고 친숙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진 기자

19일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에서 열린 인터넷 및 모바일 쇼핑몰 '새재장터' 개장식에서 관계자들이 떡컷팅을 하고 있다.

상주시, 2017경북환경상 대상 수상

상주시는 경북도가 주관한 2017년 '경북 환경상' 기관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번 경북환경상은 환경 분야 정부합동평가 실적과 환경예산 확보비율 및 녹색생활실천, 대기질 개선, 자원순환, 수질개선 및 오염예방 등 전반적인 환경 분야의 우수사례와 특수시책에 대한 경북도의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그동안 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전기자동차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 △재활용 비닐류 수거 △폐건전지 수집보상 교환시범사업 △행락지 자연정화활동 △수질오염사고 방제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 작성·운영 등 다양한 환경시책을 추진해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으로 녹색오픈마켓 운영,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친환경 추석명절 보내기 행사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한 분야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주시는 지난 2011년, 2014년, 2016년 '경북환경상' 평가에서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경북환경상' '대상'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게 돼 '환경 우수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이번 수상은 녹색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주시의 결실이며, 환경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살맛나는 희망도시로 가꾸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예천군 농업기술센터 3번째 지방행정 달인 배출

사과, 미생물, 곤충
3명의 달인 배출로
기술력 인증 받았다

예천군 조봉래 친환경바이오 담당이 2017 제7회 지방행정달인으로 선정돼 수상함으로써 예천군이 3명의 지방행정 달인을 배출, 최고의 농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임을 다시 한 번 대내외에 널리 알렸다.

곤충산업화 기술개발 보급 달인으로 선정된 조봉래 친환경바이오 담당은 농가현장 산업화

꿀벌 육종연구 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실시였으며, 정부장려품종 1호 '장원벌' 개발에 기여해 국내 꿀 생산량을 6300톤 증가로 농가소득 700억원 향상에 일조였다.

또한, 울릉도에 전국 최대(1만6000m2) 여왕벌 생산기지를 조성해 2017년 장원여왕벌 3000마리를 공급 하는 등 우량꿀벌 생산 보급 산업화로 국내 양봉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곤충식품 매뉴얼 개발, 곤충 농장학교 운영 및 곤충치유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곤충농가 신 소득원을 개발하고 있으며, 꿀, 화분 등 봉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브랜드개발과 봉독의 친환경 축산분야 활용 등 곤충산업화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앞서,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2년 최효열 농촌지도사가 고품질 사과 생산의 달인으로 최초 선정됐고, 2013년에는 김진원 농촌지도사가 친환경미생물 활용 연구 공적으로 수상한 이력이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주최하고 월간지방자치가 주관하며, NH농협이 후원한 제7회 지방행정의 달인에는 전국 68명의 후보자가 응모해 서류심사, 현지심사, 발표심사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6개분야 10명의 달인이 선발돼 19일 오후4시 행정안전부에서 시상였다.

이주현 기자

상주농기센터,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최우수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ICT융복합 재배기술 도입, 6차 산업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성과를 거둬 2017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였다.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는 각 도에서 3개시군 센터를 추천하고 중앙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경북에서는 상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선정돼 농업의 중심도시 상주의 위상을 한 번 더 확인했다.

특히, 쌀 산업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한 '상주곶감쌀빵' 개발, 농약 안전사용 및 3저·3고 운동 등 시·도·중앙 간 연계사업의 성과에서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았고, 전국 최초 베리축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을 증대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농촌진흥사업 최우수기관 상은 농업현장의 문제를 적극 대처하고자 열심히 일해 준 직원들의 성과"라며, "2017년 농촌지도사업의 주요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도에는 4차 산업혁명의 농업현장 접목과 청년농업인 육성,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상주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라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의성군, 경북도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최우수 선정

환경보호 자원 재활용 앞장
6년 연속 수상의 영예 안아

의성군은 경북도 새마을운동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한 해 동안 추진한 새마을운동 활성화 시책, 특수시책 등 6개 분야를 경

북의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것으로 의성군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최우수상을 수상해 6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의성군은 함께 살아가는 의성을 만들기 위해 도로변 꽃길 조성 등 군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 사업과 계곡이나 마을주변에 장기간 방치된 생활쓰레기 처리로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전념했다.

또 의성군새마을회와 협력을 통해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남에게는 필요한 생필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나눔 장터를 운영하고 입을 수 있는 옷 모으기 행사에 72톤, 쓰고 버려진 농약공병 68.4톤을 수거하는 등 자원을 재활용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판매한 수익금은 연말 홀몸노인 등 주변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환경보호와 이웃사랑을 실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의성군과 의성군새마을회는 상호 협력해 숨은자원모으기, 새마을대청소, 집수리 봉사, 연탄나누기, 사랑의 김장나누기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폭넓게 추진하며, 아름다운 지역의 의성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박재성 기자

문경미소㈜·㈜월드에너지 수출 유공업체 경북지사 표창

지난 15일 경북도와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 및 대구경북기업협의회는 제54회 무역의 날(대구·경북)을 맞이해 대구 인터불고호텔 컨벤션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였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지사를 비롯해 지역의 수출유공기업 및 유관기관 수상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경시 기업체 중에는 농업회사법인 문경미소㈜(대표 김경란)와 ㈜월드에너지(대표 류진상)가 경북지사 수출 유공업체 표창을 수상였다.

문경미소㈜는 지역특산물인 오미자를 활용한 오미자김과 양파김을 생산하는 업체로 올해 처음 러시아, 중국, 미국 등에 5만불을 수주였으며, 지속적으로 해외시장 판로확대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월드에너지는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등에 냉방을 위해 설치되는 고효율 흡수식냉동기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로 캐나다, 미국, 중국, 태국, 이탈리아, 독일 등 10여개국에 667만불을 수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윤환 시장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험난한 수출 여건 속에서도 수출을 견인한 지역 기업인의 적극적인 대처와 해외시장의 개척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격려했다.

이은진 기자

경북교육청, 제43회 교육상 수상자 4명 선정

열정적 교육 활동으로 헌신
명품 경북교육에 크게 기여

포항명도학교 이경숙 교사

안동초 정성원 교장

감천중 정성헌 수석교사

경북체육고 황인일 교사

경북교육청은 20일 평소 교육에 대한 남다른 소명 의식을 갖고 교육현장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헌신해 온 '제43회 경북도교육상 수상자' 4명을 발표했다.

올해 경북교육상은 포항명도학교 이경숙 교사, 안동초등학교 정성원 교장, 예천 감천중학교 정성헌 수석교사, 경산 경북체육고등학교 황인일 교사가 수상하게 됐다.

이경숙 교사(포항명도학교)는 성실한 자세와 사명감으로 각종 연구대회 및 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 교과연구회 활동 등 교실수업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해 왔으며,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어울림오케스트라, 명도사랑회 활동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인성 발달을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랑과 나눔을 몸소 실천해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정성원 교장(안동초등학교)은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으로 학교 특색과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경영을 통해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를 만들었고, 안동교원총연합회 회장, 경북초등교장협의회 부회장으로서 교원의 단합과 권익보호에 앞장서며, 굿네이버스 교육전문위원회 회장, RCY경북명예단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소외된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애쓰는 등 경북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정성헌 수석교사(예천 감천중학교)는 일본 나고야대학, 미국페르미연구소 연구원으로 국제공동실험에 참여하고, 일본물리학회의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나라 과학의 위상을 높였고, 융합인재교육(STEAM), ICT 교육, STS교육 등 과학교육 분야 자료개발과 적용으로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과학영재 육성, 과학축전 운영, 과학동아리 활동 등으로 과학문화 확산과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

황인일 교사(경산 경북체육고등학교)는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한 자세로 학교체육 발전과 우수 선수 발굴 육성에 열과 성을 다했고, 탁월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한 결과 사이클 종목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에서 총 406개의 메달을 획득해 지역의 위상을 크게 높였으며, 학교 엘리트체육 활성화와 경북 학교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용구 기자

다 함께 소통하며 밝고 건강한 학교풍토 만들자

대구교육청 소속 4개 교육지원청
사제동행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여

대구시교육청 소속 동부·서부·남부·달성 4개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초·중학교 학생과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2017 사제동행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열어 학생과 교원들의 관계회복형성과 뜨거운 열정의 시간을 가졌다.

사제동행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교사와 학생이 한 팀을 이뤄 경기에 참가하면서, 서로 간의 정을 느끼고 소통하는 가운데 밝고 건강한 학교풍토를 만들고자 매년 연말 열리는 대회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배드민턴을 비롯한 7개 종목 14개 세부종목에 모두 88팀이 출전했다. 총 56교(초 34교, 중 22교) 796명(학생 692명, 교원 104명)의 선수가 경기에 임했으며, 일부 종목에는 교장과 교감까지도 선수로 참가해 사제동행 대회의 의의를 더하고 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탁구, 프리테니스, 배드민턴, 8자줄넘기, 단체줄넘기 등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치러졌다. 운동할 기회가 부족했던 선생님들은 제자들과 함께 뛰고 호흡하면서 관계회복형성 및 뜨거운 열정의 시간을 가졌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초·중학생과 교원이 참가해 초등학교 배드민턴을 비롯한 4개 종목 10개 세부종목에 모두 45팀이 출전했다. 총 33교(초 21교, 중 12교) 335명(학생 376명, 교원 41명)의 선수가 경기에 임했으며, 일부 종목에는 교감선생님까지도 선수로 참가해 사제동행 대회의 의의를 더하고 있다.

달성교육지원청은 피구 8팀, 탁구 13팀, 및 배드민턴 14팀, 총23교 334명(초 14교 166명, 중 9교 168명)이 출전해, 올 한해 함께 쌓아온 기량을 펼치고 사제 간의 정을 다시 한 번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동부교육지원청 최방미 교육장은 "사제동행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통해 무너지는 교권과 사제간 불신의 학교현장에서 사제간의 정과 동질감을 느낌과 동시에 관계회복의 행복한 시간이 됐다. 또한 체육교사 외 다른 과목 교사도 자신의 취미를 살려 학생들을 지도하는 등 좋은 점이 많아 내년에는 대회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DGIST-달성군, 상생 발전의 날개 달다

관·학 교류협력 MOU 체결
지속 가능한 공동사업 수행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와 달성군은 20일 오전 11시 DGIST 대학본부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학 협력과 교류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은 DGIST와 달성군이 관·학 협력을 통한 지속성장 가능한 공동사업 수행하고 발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 기관은 △지속성장 가능한 공동사업 수행 및 네트워크 구축 △지역·대학 간 상생 및 교류 협력 프로그램 추진 △공동 홍보 협력 플랫폼 구축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 등 공통 관심 분야에서 상호 지원 및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DGIST는 연구개발한 기술을 기업 CEO 및 연구원들에게 공개하고 기술을 교류하는 행사인 Collaborative Innovation Day와 Tech Day를 개최하며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 왔다.

그 결과 달성군에 위치한 기업들에게 자동차 관련 기술 등을 이전하고 협동로봇을 공동으로 개발했다.

또한, 올해 9월 '비슬밸리 산업발전 추진위원회'를 출범하며 산·학·연·관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 신성장 분야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DGIST 학부생들은 달성군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 지도와 대학탐방, 문화체험 등의 멘토링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의 진로 및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는 교육기부 활동을 했으며,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교실을 진행하며 미래 과학도의 꿈을 키워 왔다.

달성군은 현재 DGIST-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 공동연구센터 설립 지원사업과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DGIST-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 공동연구센터 설립 지원 사업은 융복합 소재 개발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 기초과학 연구소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LBNL)를 유치해 해외연구기관의 기초 및 핵심기술의 연구 기법을 강소기업 육성, 지역산업 첨단화 등에 활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6년간 달성군 보조금 12억원을 지원받았으며 2018년에도 2억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은 치료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차원의 건강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견인하기 위해 서비스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증 사업, 기업용 비즈니스 모델 2종 개발, 웰니스 지수 검증 및 표준화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3년간 군비 5억원을 지원받았다.

DGIST 손상혁 총장은 "DGIST는 융복합 교육과 연구를 통해 창의, 도전, 협력, 배려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 융복합 기술을 창출하며 달성군의 미래브레인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달성군과 DGIST가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 및 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20일 오전 11시 DGIST와 달성군이 상생 발전을 위한 관·학 협력 업무 협약을 맺고 DGIST 손상혁 총장(오른쪽)과 달성군 김문오 군수(왼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한의대-동국대, 산학연 협력 강화

한의학·한방·바이오산업 분야
연구노하우·정보교류 등 협약

대구한의대학교는 지난 19일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대학본관 로터스홀에서 산학연 협력 및 학생교류를 위해 동국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변창훈 총장과 한태식 총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소개 및 홍보동영상 시청, 협약 내용 설명, 협약서 서명,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한의학, 한방산업, 바이오산업 등 양 대학 강점 분야 발전을 위한 연구 △연구·기술개발, 기술지도 활성화와 정보 교류 △양 대학이 수행중인 정부 재정지원사업 성과 공유 △학생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생상담, 유학생 유치, 교수학습프로그램 등 우수사례 및 정보 교류 △기타 상호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변창훈 총장은 "이번 협약은 수도권과 지역대학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한의학과 한방·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서로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 노하우와 산학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구한의대 변창훈 총장, 이영화 교학부총장, 정성화 기획처장과 동국대 한태식 총장, 이관제 대외부총장, 박명화 기획처장 등이 참석해 양 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다짐했다.

김진희 기자

협약식 단체사진(왼쪽 네번째부터 동국대 한태식 총장, 대구한의대 변창훈 총장)

미래인재 양성 학생활동중심수업 역량강화

초등 예비수업선도교사 등 대상
구미교육지원청, 수업문화 개선

구미교육지원청은 20일 경북도교육연수원 인재관에서 2017 학생활동중심수업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구미지역 초등 예비 수업선도교사 및 수업연구교사 1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북교육청 초등과 김덕희 장학관의 '미래사회와 학생활동중심수업'이라는 주제강의와 학생활동중심수업전문가 활동에 대한 해마루초등학교 이응석 선생님, 야은초등학교 송지영 선생님의 1년 동안의 사례발표로 진행됐다.

연수에 참가한 예비 학생활동중심수업 전문가 선생님들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요즘 미래융합사회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활동중심수업 개선 등 선생님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활동중심수업을 통한 교실수업개선 의지를 다지고 많은 것을 느끼고 얻어서 좋았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추미애 교육지원과장은 "학생활동중심수업이 일상화가 되도록 예비수업선도교사와 수업연구교사가 수업문화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진 기자

계명대 양궁부 김수린, 발전기금 500만원 전달

계명대 양궁부 김수린(여, 22세, 체육학전공) 학생이 20일 모교인 계명대에 발전기금으로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는 최근 현대모비스 양궁실업팀 입단이 결정되면서, 계약금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내놓은 것이다.

김수린 학생은 "오늘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과 류수정 감독의 지도와 가르침 덕분이었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동안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일희 계명대 총장은 "금액을 떠나 그 마음이 더욱 감사하다"며 "선배 장혜진 선수와 같이 훌륭한 선수가 되어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빛 내주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김수린 학생은 계명대 재학시절 2015 유스 세계선수권대회 단체 1위를 비롯해 제51회 전국 남녀종별대회 여자대학부 1위, 제34회 올림픽기념 회장기 대학실업대회 여자단체 1위, 제49회 전국 남녀 양궁종합선수권대회 여자 50m 1위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둬 이번에 현대모비스 양궁실업팀에 입단하게 됐다.

또, 내년 3월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최종출전권'에 참가해 국가대표 선발을 목표로 훈련하고 있다.

김진희 기자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안도규
외교학술대회서 연이어 수상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2학년 안도규 씨(사진·24)가 올해 열린 외교 관련 학술대회에서 연이어 최우수상과 대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안도규 씨는 지난 13일 경북대 경하홀에서 열린 '제1회 K-독도 공모전'에서 '온라인 독도홍보 전략과 구글 접근성 문제' 논문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경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이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다양한 독도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고 독도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독도 수호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올 11월에는 외교부 주최, 세종연구소 주관 '제4회 한·일·중 3국 협력 논문 경진대회'에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최성민 학생과 함께 '한·일·중 물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 해운물류를 중심으로' 논문으로 최우수상을, 올 10월에는 보건복지부 주최 '제1회 사회보장통계를 활용한 이슈페이퍼 공모'에서 전남대 경영학과 이영주 학생과 함께 '다문화가족 자녀 학업 문제와 개선방안'의 연구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용구 기자

안철수 "통합 찬반으로 당대표 재신임 묻겠다"

"찬성의사 확인되면 신속통합…통합후 백의종군"
21일 당무위 소집 '전당원투표'…호남의원 반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당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며, 바른정당 통합론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특히 "당원의 뜻이 통합 반대로 확인될 경우 그 또한 천근의 무게로 받아들여 당대표직을 사퇴함은 물론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는 당내 혼란을 조속히 정리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저는 결연한 각오로 당대표 직위와 권한을 모두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기자회견 이후 곧바로 당무위를 소집하며, '속전속결' 의지를 확실히 했다. 당무위 소집일자는 오는 21일로, '전당원투표 실시'가 제1안건이다. 안 대표는 최근 며칠 간 유승민 대표와 회동 및 전화통화를 통해 통합론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는 "통합에 대한 당원 여러분의 찬성 의사가 확인되면 저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신속한 통합 작업 후 저는 새로운 당의 성공과 새로운 인물 수혈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바른정당 통합 후 '2선 후퇴' 의지도 밝혔다.

그는 또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와 폭넓은 당원 대상 조사도 통합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수치로 반영하고 있었다. 호남의 여론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이렇게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는 시간에 안타깝게도 일부 중진 의원은 근거를 알 수 없는 호남 여론을 앞세워 통합 반대 대표 재신임을 요구했다"고 발언, 통합 반대파를 이끌고 있는 박지원·천정배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을 직격했다.

안 대표는 특히 "전당원투표로 확인되는 당심은 구성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당이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서 여전히 자신의 정치이득에 매달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사실상 전당원투표에 승복하지 않으려면 당을 나가라는 의미다.

그는 "국민의당은 호남의 지지로 우뚝 선 정당이어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출발점인 호남 정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다"며,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호남의 민주주의 전통을 왜곡하고 김대중 정신을 호도하는 구태정치, 기득권 정치를 끝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호남정치 회복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후로 예정된 의원총회를 앞두고 중립지대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보인다.

그러나 안 대표가 통합 반대파를 '구태정치', '기득권 정치'로 규정하면서 이날 의원총회에서 반대파와 심상찮은 충돌이 예견된다. 사실상 통합 논의로 당이 분당 수순에 들어섰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안 대표가 이날 회견에서 호남 중진들의 '거취'를 공개 거론한 것은 분당 사태를 감수하고라도 통합 논의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호남 중진들은 분개하고 있다. 박지원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호남 중진들의 거취 운운하는 것도 결국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을 나가라'는 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내 생각하고 똑같은 사람들하고만 정치를 하겠다는 '안철수 사당화', '독재적 발상'"이라며, "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려는 통합 반대 노력을 구태로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가증스러운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호남 중진 의원들은 안 대표 긴급기자회견을 전후해 박주선 국회부의장실에 모여 대책 논의에 나섰다. 일각에선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의원총회를 '전체 공개'로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의원총회에서 안 대표에 대한 반발 기류를 날것으로 노출시켜 통합론을 꺾겠다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선 안 대표의 이날 '깜짝' 통합 승부수가 오는 21일 손학규 고문 귀국을 앞두고 역할 분담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안 대표는 다만 기자들과 만나 "(손 고문과는) 미국에 계신 동안 이 문제로 깊이 있는 논의를 해보지는 못했다. 귀국하시면 이제 함께 의논하려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또 의원총회에서 전당원투표 거부 결론이 나올 경우에 대해서는 "전당원투표에 대한 부분은 당무위 결정사항이다. 당헌당규에 기록돼 있다"며, 강행 의사를 확고히 했다. 그는 "만약 전당원투표에서 통합에 대해 많은 당원들이 찬성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절차는 1월부터 밟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표는 K보팅(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시스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 대표는 갑작스레 기자회견을 연 배경에 대해서는 "더 늦추는 것은 우리 당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뉴시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당원이 찬성하면 백의종군하고 반대하면 사퇴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진훈 구청장, 대구시장 공식 출마 선언

4가지 대구 재설계 통해
10조 뉴딜로 경제 활성화

이진훈 수성구청장이 20일 오후 대구시 동구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내년에 열리는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대구시 이진훈 수성구청장이 20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것을 공식 선언했다.

이 구청장은 "3선 구청장이라는 쉬운 길을 외면하고 대구시장 출마를 결정한 것은 대구의 아들, 대구의 일꾼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대구의 큰 꿈을 꾸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모아 그 꿈을 이뤄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람이 모여드는 대구, 시민이 성장하는 대구를 슬로건으로 대구공항과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내륙교통 중추도시로서 정립해 온 3대 도시의 위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화운동의 불길을 일으키고 1960년대와 70년대 국가 산업화를 선도한 시민들의 자부심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시민들과 이 시대가 대구시장에게 요구하는 제1의 사명이 경제 활성화다"며, "대구의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서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에 올인하는 시장, 대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시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구청장은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 위대한 대구를 건설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10조 대구 뉴딜'을 제시했다.

그는 "시장 취임 후 4년간 공공과 민간투자 10조원을 투입해 대구공항과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항기반도시 조성, 낙동강 4차 산업혁명 거점 조성, 금호강 르네상스, 도시재창조 등 4가지의 대구 재설계를 통해 10조 대구 뉴딜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또 "10조 대구 뉴딜은 단순한 건설사업이나 경제 정책이 아니라 대구의 현 위기를 총체적으로 돌파하는 종합적인 정책이다"며, "이는 어려움에 빠진 시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며, 제 정치행정의 철학인 일이 되도록 하는 행정, 삶을 변화시키는 정치를 통해 대구를 개혁하는 일이며,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대구로 부흥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마친 이 구청장은 충혼탑을 참배하고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한편 이 구청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충남대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2회에 합격했다. 이후 대구시 경제산업국장, 수성구 부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다. 2010년부터 수성구청장으로 있다.

류재현 기자

박명재 의원, 경북지사 출마 선언

지사 권한 23개 시군 대폭 위임
특화산업 육성 발전 전략 밝혀

박명재 한국당 의원이 20일 오전 경북도청 프레스룸에서 경북지사 경선 출마 선언문을 읽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20일 오전 경북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지방선거의 경북지사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경북은 지금까지 많은 정치 지도자를 배출한 대한민국의 정치 중심지이면서 경제적으로는 산업화를 이끈 조국 근대화의 전진기지이고, 문화적으로 3대 역사문화를 간직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이면서 안보적으로 6·25전쟁 등 국난극복의 최후보루이자 호국의 고장이지만 지금은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지역경제 위축, 지역소멸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박 의원은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미래 도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민선 24년 도정 전반에 대한 총체적 진단과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지사의 권한을 23개 시군에 대폭 위임하고 권역별 신산업기반들을 세밀히 진단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1·15포항 지진에 따른 대책마련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포항·경주·울산 등의 활성단층과 액상화 현상에 대한 신속한 조사·연구 및 철저한 대책 수립, 포항·경주지역에 지진방재연구소 설립 등 경북이 더 이상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지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북도정의 안살림을 맡았던 행정부지사, 중앙과 지방행정을 총괄했던 청와대 행정비서관과 행자부장관,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예산을 총괄했던 국회기획재정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 전 집권여당의 사무총장과 자치안전위원장 등 도정·국정·의정을 아우른 경험을 바탕으로 위대한 경북 건설의 발판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경북발전 전략으로는 △1시·군 1강소 특화산업의 육성 △포항 철강, 구미 전자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개혁 △농업부문의 FTA대응과 6차산업화 △동해안 탈원전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원자력해체센터 유치 △경북농민사관학교를 농어민·청년·여성 등 경북종합사관학교로 대폭 확대 △동해안발전본부를 제2도청으로 확대 추진 △통합대구공항 건설 △경주/포항/김천·구미 KTX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가족공동체 복원사업의 추진(할매 할배의 날 계승·발전)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유치 △국립안전문화교육진흥원 설립 유치 등을 밝혔다.

강동진 기자

이철우 의원 "경북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도청서 경북지사 출마 선언
"보수우파의 품격 회복할 것"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20일 오후 경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경북지사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6월 지방선거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과거 서울과 자웅을 겨뤘던 경북이 '덩치 큰 변방의 낙후지역'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지방시대에는 경제·행정 논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도정을 펼칠 젊고 추진력이 있는 지사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주장했다.

그는 경북 발전전략으로 △경북 역사 이래 최대의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환동해 지역본부를 제2청사로 승격 △미래 지향적 경제 선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농업의 첨단화와 청년창농 활성화 △이웃사촌 복지 도입 △지진방재대책 마련 △감탄할 정도의 도정혁신 등을 내놨다.

김천 출신인 이 의원은 "상주, 의성, 포항 등에서 살아온 경북 토박이로 민선 이의근, 김관용 지사 때 부지사로 도정을 수행해 본 경험과 정치 경력에서 당적을 이탈한 적이 없는 점 등을 통해 정통성을 갖췄다"며, 경쟁자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지방정부 시대를 준비해 온 소통과 화합의 인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3선 국회의원 동안 지방 소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국회지방살리기포럼, 국회대한민국살리기포럼 등을 창립해 활동한 바 있고, 올해는 국회헌법개정특위의 간사를 맡아 강력한 지방분권을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사드 기지 가까이로 이사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 당 사무총장을 맡아 대선을 진두지휘하고 패배 후 책임지고 사퇴한 것을 들며, '약속의 정치인'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연말에 당 최고위원, 내년 3월쯤 예상되는 경선때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경선에 떨어져도 사퇴를 번복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낙동강·동해안의 기적으로 경북을 한국 경제의 중심으로, 보수우파의 품격을 회복해 정치의 중심으로, 류성룡 선생의 징비정신을 새겨 호국의 중심으로 경북을 재도약시키겠다"며, "그동안 키워주고 성장시켜준 웅도 경북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정열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김용구 기자

"정부, 사드배치 보상정책 신속히 이행해야"

정영길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정영길(성주·자유한국당) 도의원은 20일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서 "기습적인 사드 배치로 아픔과 갈등에 빠져 있는 성주 군민을 위로하기 위해 정부가 약속한 보상정책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 7월 13일 성주 군민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성주군에 사드배치를 일방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평화로운 성주 군민들의 삶이 뒤바뀌고 성주 군민들 모두 갈등과 아픔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이 성주군의 갈등을 봉합하고, 아픔을 위로하여야 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약속한 보상지원을 위한 후속조치는 실종되고 관련부처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성주 군민들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지원약속을 믿고 성주군이 제안한 대구와 성주를 연결하는 국도 6차로와 성주와 김천을 연결하는 지방도 905호 확장 등을 포함한 18개 사업들이 2018년 정부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국회를 통해 성주군이 요구한 사업예산 또한 91억원 정도 반영되는데 그쳐 당초 제안한 1조 8000억원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주 군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위로하고 갈등을 봉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개발정책 약속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경북도 또한 이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과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균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일보 '독자의 가슴' 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 www.dgy.co.kr 전자우편 : dgynews@daum.net
대표 김성용 | 발행인 정주필 | 편집국장직대 조여은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25(8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에너지에서 찾은 미래 에너지신산업 시장으로 | 미래로 | 세계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대한민국
에너지신산업 육성의 리더, 한국수력원자력

자연에게 받은 에너지를 다시 자연에게 돌려줘야한다는 생각-
한수원은 건강한 에너지를 위해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에 앞장서며**
대한민국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연의 빛 에너지 그대로
공해없는 태양광발전소

도심 속 조용하고 깨끗한
세계 최대규모 연료전지발전소

KHNP

육상과 해상의 바람으로
무한한 가능성의 풍력발전소

비 화산지대에서 24시간 운전가능한
국내 최초 지열발전소

유기물의 광합작용을 이용한
친환경 바이오매스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